

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·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- 청 원 자 :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 범 성북구민 대표 성북구청장 이승로(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) 외 26만명
- 소개의원 : 김원중 의원(국민의힘, 성북 제2선거구)
- 접수일자 : 2025. 02. 06.
- 회부일자 : 2025. 02. 07.

2. 청원요지

-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평가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었으나, 2024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사업 계획이 좌초됨
-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은 43만 성북구민의 염원으로, 청원은 ‘강남북 차별 없이 성장’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강북권을 자족가능한 미래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
- 이에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(변경)에 강북횡단선 원안을 반영, 사업을

재추진 해줄 것을 청원함

3. 소개의원 요지

- '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강북횡단선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는 '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(변경)에 강북횡단선 원안을 반영하고 반드시 사업을 재추진해 주기를 청원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- 제출의견: 원안가결
 - 지침²⁾상 예타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·사회적 여건 변동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만 예타 재요구 가능
 - 경제성 제고를 주안점으로 선형변경, 정거장 조정 등 다각도로 대안 검토 중

1) 교통정책과-2366('25.2.14.) '제328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 및 청원 건에 대한 의견제출'

2)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0조(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청원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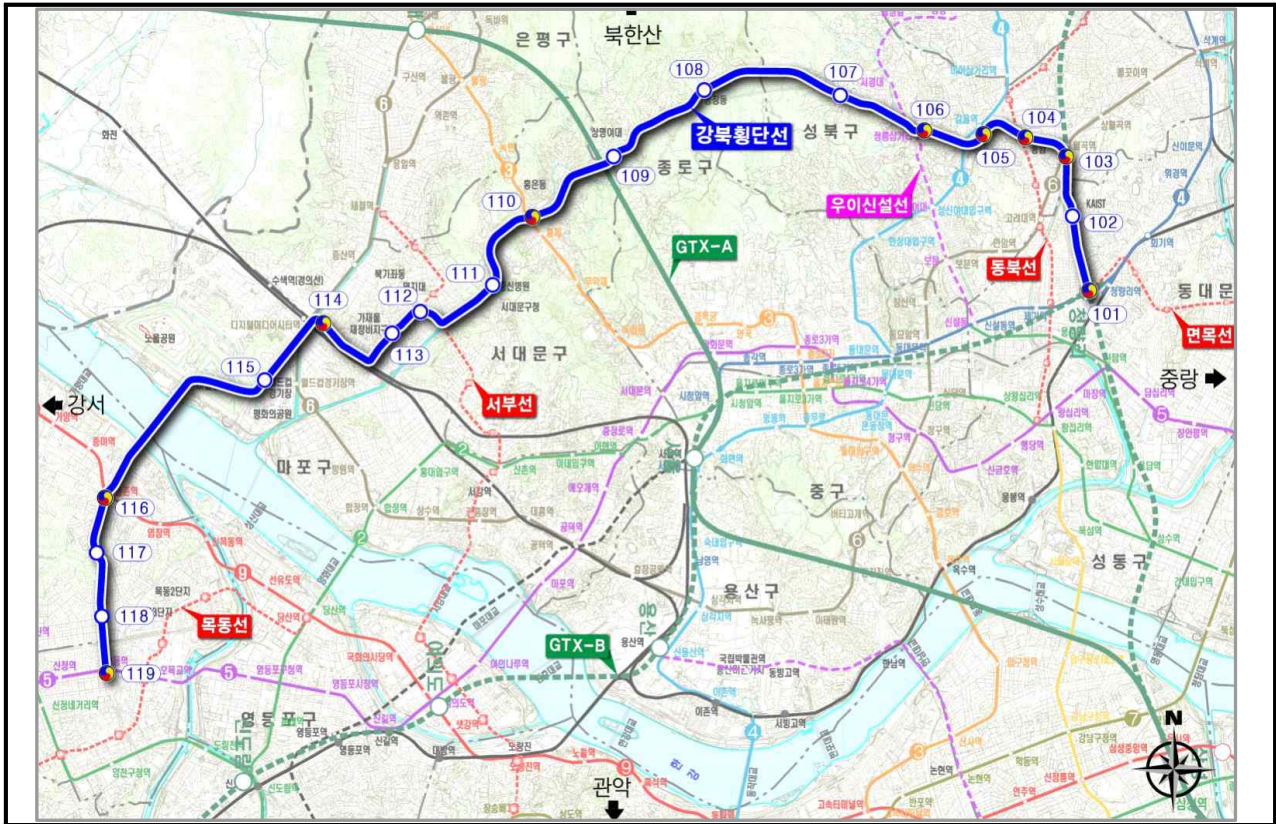
- 동 청원은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강북횡단선을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‘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(변경)’에 원안 그대로 반영 후 재추진하여 서울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강북횡단선 추진현황

- 강북횡단선(청량리역~목동역, 총 연장 25.72km, 정거장 19개소, 차량기지 1개소)은 지형 제약으로 이동이 어려웠던 강북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내부순환로 지하를 따라 강북을 좌우로 횡단하는 경전철을 통해 지하철 서비스 소외 지역이었던 서대문구, 성북구 및 종로구 북부의 대중교통 접근성 확대를 통해 강북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노선임

※참고1: 강북횡단선(예타안)



- 강북횡단선은 「도시철도법」 제5조제1항3)에 따라 '19년 2월 수립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중 하나로 '20년 11월 국토부에서 승인·고시4)한 바 있으나, 지난 '24년 6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탈락5)한 바 있음

3) 「도시철도법」 제5조

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·운영하려면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4)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822호 “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”

5) ‘청량리~신내역’ 면목선 예타통과.. 강북횡단선은 탈락 (뉴시스, '24.6.5.)

※참고2: 강북횡단선 추진현황(예비타당성조사 기준)

- 노 선 명: 강북횡단선(도시철도)
- 구 간: 청량리역 ~ 목동역
- 사업내용: (연장) 25.72km, (정거장) 19개소, (차량기지) 1개소
- 사 업 비: 2조 6,063억원(시비 15,638 국비 10,425 ※ 단가기준:2020년)
- 추진현황
 - '19.02.20.: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(안) 발표 (강북횡단선 신규노선 선정)
 - '20.11.17.: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·고시 (국토부)
 - '21.10.01.: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(KDI)
 - '24.05.09.: 종합평가회의
 - '24.06.05: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(예타 탈락)
 - '25.02.현재: 강북횡단선 대안 검토 중 (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)

■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와 강남·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횡단선 원안 재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

-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, 서북권, 동북권의 철도 서비스 제고를 통해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선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음
- 동 청원은 '24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강북횡단선을 서울의 강남·북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원안 재추진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,

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「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

획(변경)」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(이하 ‘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(변경)’)⁶⁾에 강북횡단선 원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

- 당초 서울시는 ‘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(변경)’을 ’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, 도시·광역철도 건설·운영 효율화 및 재무 건전성 확보,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와 효율적인 연계방안 마련, 수도권 도시철도망 간 효율적 연계체계 통합기획 등을 사유로 ’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음
- 강북횡단선은 ’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종합평가⁷⁾ 당시 지역균형발전효과로 우선순위 노선에 선정된 바 있으며, 낙후된 서북지역과 강북지역 등을 강서 지역과의 연계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와 시민이동 편의성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이 기대됨에 따라 동 청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
- 다만, 서울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후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선형조정, 역사 조정 등 대안 검토 중⁸⁾이며,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(변경)에 원안을 재추진하는 청원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동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

6) 교통정책과-10785(’24.12.) “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(변경) 타당성 재검토 및 종합발전 방안 연구용역 준공기한 연장 계획(2차)”

7)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(2021-2030) -서울특별시, ’20.11.

8) 서울시,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추진·강남북 균형발전..정부에 제도개선 방안 건의- 서울특별시, ’24.7.10.

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⁹⁾상 예비타당성조사 재요구시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·사회적 여건 변동 또는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재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청원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9)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30조(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)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·사회적 여건이 변동된 경우 또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구할 수 있다.